

大學과 社會의 連繫性 強化

池 應 業

(亞洲大 黨業科 教授)

I. 머리말

傳統的으로 定義되고 있는 大學의 세 가지 機能인 教育, 研究 및 奉仕 중에서, 社會奉仕機能은 教育 및 研究에 비하여 分명한 定義를 내리기가 약간 모호하다. 왜냐하면 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教育과 研究 自體가 社會에 대한 奉仕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教育과 研究에서 발생하는 效果 自體가 바로 社會에 대한 奉仕라는 觀點에서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더 效果的으로 이러한 奉仕가 社會에 대하여 組織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있을 수 있다. 歷史적으로도 大學의 社會的 役割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概念을 찾아볼 수 있다. 12세기에 創設된 Bologna大學 및 많은 길드(Guild)型的 大學들로부터 시작하여 近世의 學問自由型的 歐羅巴 大學들을 거쳐서 현재의 수많은 大學들에 이르기까지 大學의 社會奉仕에 대한 概念은 많은 變遷을 겪어 왔다.

大學은 必要한 專門人의 養成, 支配 階級의 養成, 象牙塔으로서의 學問의 殿堂, 자유로운 眞理의 探究 등 社會와의 關係에 있어서 많은 변천

을 겪으면서 現在에 이르렀다. 産業化의 급속한 進行에 따른 科學, 工業 및 商業 등의 발전으로 형성된 새로운 社會階層의 形成과 이로 인한 社會生活에 대한 많은 影響으로 價値體系가 변화하게 되고, 大學은 社會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有機的 關係를 갖게끔 되었다. 大學은 그 本來의 使命이라 할 수 있는 教育機能 自體만 하더라도 知識의 傳達뿐만 아니고 專攻分野間의 統合·調整 및 高度의 專門人 養成 등이 중요한 業務內容으로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知識 및 技術의 창조에 있어 그 結果에 대한 應用 普及의 機能을 추구하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大學은 社會階層에 대하여 既存階層의 維持·存續과 새로운 階層의 形成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社會에 대한 批判分析의 機能도 開放社會에 있어서는 더욱 大學의 중요한 몫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II. 大學과 社會間의 相互作用 增大

社會가 발전함에 따라 大學과 社會間의 相互作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커졌으며 未來에는 더 深化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相互作用

用的 增大要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點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社會가 大學에 供給하는 資源의 量은 점차로 大型化하고 있다. 즉 學生數는 최근 현저하게 많아졌으며 大學의 研究費 및 大學人의 研究에 傾注하는 노력도 驚異的인 大型化 傾向에 있다. 이렇게 큰 經費는 政府 또는 產業界를 통하여 社會에서 大學으로 供給되는 것이므로, 社會는 供給한 經費의 用途에 대하여 自然히 統制하기를 바랄 것이다.

(2) 새로운 知識과 技術의 계속적인 創造를 발전의 基本으로 삼고 있는 現代社會의 特性은 새로운 技術의 研究開發이 發展戰略上으로 最優先順位를 차지하는 동시에 社會는 高度의 專門能力을 보유한 研究人의 養成을 要求하고 있다.

(3) 生活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社會의 價値體系에 있어서 貧困時代에 형성되었던 傳統의 價値體系는 흔들리게 되고 모든 것에 疑問이 생기며 나아가서 人間은 삶의 目的에 대하여 방황하게 된다. 社會는 指向目標에 있어서 方向感을 잃고 不確實性 속에 파묻히게 된다. 이러한 狀況에서 大學은 傳統의 價値體系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生活形式에 대한 논의에 큰 役割을 하게 될 것이며, 社會의 方向設定 및 選擇問題 解決을 위하여 어떤 可能性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특히 우리 社會는 현재 東洋文化와 農耕生活를 歷史的 背景으로 삼고 있으면서 歐美의 產業社會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與件 속에서 우리 社會는 전통적인 道德優先의 價値體系와 產業社會의 基盤이라 할 수 있는 合理性 爲主의 價値體系 사이에서 상당한 社會的 軋轢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轉換過程에서 우리 社會는 상당한 기간 동안 두 價値體系의 配合·定着을 위한 진동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陣痛過程에 있어서 새로운 價値體系를 제시하고 확산시킬 可能性은 大學에서 第1次的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5) 知識 및 技術의 發達速度가 점차로 加速化되고 새로이 개발된 技術의 應用이 신속하게 일어나므로 專門人에게 要求되는 業務遂行能力도 대단히 빠른 週期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는 大學 4年間의 정상적인 學習으로 얻은 知識 및 基礎 能力으로 은퇴할 때까지 자신이 맡은 業務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分野에 따라 大學卒業 後 불과 數年이 지나면 거의 쓸모가 없는 知識 및 技術로 변하고 만다. 이러한 빠른 速度로 창조되는 知識 및 技術의 龐大性은 個人의 職業遂行能力의 老衰現象뿐만 아니고 社會의 日常生活에도 지대한 變化를 招來하게 되어 日常生活의 영위에 있어서도 새로운 知識 및 情報의 흡수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6) 원래 大學의 主機能이라 할 수 있는 教育 및 研究는 최근 大學 以外의 場 즉 一般社會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 예측된다. 教育 및 研究의 效率性은 방대한 知識 및 技術 情報의 貯藏 및 管理方法의 效率성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大學과 社會는 서로 상대방의 教育 및 研究에 대하여 그 方法과 結果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大學 밖의 많은 團體 및 個人들이(政治, 行政, 企業, 高等學校, 病院 등) 大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關心을 쏟고 있는 理由와 이와는 反對로 大學이 社會에 대하여 더욱 접근하려는 傾向이 높아지고 있는 現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大學教育의 目的을 國家-社會의인 次元에서 보려는 傾向性도 같은 理由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Ⅲ. 社會의 發展과 大學

大學은 靑年들을 그들의 희망에 따라 教育시켜 줌으로써 社會에 나가 그들의 生活를 영위하게 하는 同時에 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大學은 未知에 대한 好奇心과 成就意欲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연구하게 되고 그 研究結果는 社會가 活用하여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와 大學 사이의 連繫性이 바로 社會發展에 대하여 大學이 할 수 있는 全部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충분

한 면이 많고 너무나 단순한 것으로 생각된다.

科學革命이 學者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大學은 이에 대하여 약 100年間이나 냉담하였고 産業革命은 大學 밖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大學講義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100年以上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看過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앞서 論議한 바와 같이 (1) 社會에서 大學에 供給하는 資源의 大型化, (2) 새로운 知識 및 技術의 創造를 위한 研究開發의 最優先化, (3) 傳統的 價値體系가 나타내는 社會의 軋轢問題, (4) 平生教育의 必要性, (5) 大學밖의 教育 및 研究 實施 등으로 인하여 社會의 大學에 대한 要求는 증진처럼 그들의 子女教育만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知識 및 技術, 새로운 創意, 그들이 바로 實踐에 옮기기가 어려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小規模 實驗, 平生教育, 그들에 대한 諮問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業務들을 大學에 대하여 要求하고 있다. 또한 大學은 社會에 대하여 점차로 大型化하고 있는 研究 및 教育에 필요한 研究費 및 教育費를 要求하고 있다. 社會는 大學이 要求하는 教育費 및 研究費를 제공하면서 大學에 대한 干涉을 試圖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조심스럽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強力하게 할 경우도 있다.

물론 大學은 社會의 강력한 干涉에 대하여 教育 및 創造活動의 特性을 살리기 위한 「大學의 自律性」이라는 名分으로 抵抗할 수도 있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特徵의 하나인 相互依存性이라는 觀點에서 생각할 때 어느 個人이나 團體도 완전한 無干涉 狀態로 놓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社會와의 “주고 받는 關係”에 있어서, 自身 및 社會의 特性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점점 심화되어가는 相互作用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서로 生存과 發展의 길을 摸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

大學과 社會의 特性에 있어서는 몇 가지 상이한 점을 서로 比較해 볼 수 있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財政에 있어서 大學은 받는 立場에 놓여 있으며, 創造에서는 大學은 社會보다 原理의 側面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大學은 여러 면에서 社會보다 더 자유스럽고 批判的이며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目的意識이 社會만큼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大學은 社會에 미하여 確實性 및 適應力이 약하며 假說的 疑問을 보다 많이 제기하고 意思決定에 있어서도 보다 독자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大學과 社會間의 差異點은 오랜 歷史的 背景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大學이 社會의 發展에 보다 效率的으로 기여하기 위한 結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이 社會奉仕를 통하여 社會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事實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社會奉仕를 大學의 새로운 機能으로 발전시켜 나간 좋은 예가 美國의 모리틀랜드貸與法(Morrill Act, 1862)에 의하여 設立된 州立大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機能에 대한 理念을 응용한 分野는 農業部門이었는데 大學이 聯邦政府, 州政府 및 市·郡의 여러 關係機關은 물론이고 個人組織과도 협력하여 독특한 知識·技術의 傳達方法을 개발하여 食糧의 生産 및 配分에 科學的 方法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大學의 노력으로 食糧生産은 급속하게 增大하였고 供給에 있어서도 새로운 衡平關係를 만들 수 있었으며 農業人口는 급격히 減少되고 그 結果로 생긴 剩餘人口는 近代工業發展에 必要한 部門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IV. 우리 社會의 경우

우리나라의 現代社會 發展은 진정한 뜻에서 1945년의 解放以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5,000년의 歷史的 背景에 의한 慣性的 潛在力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影響을(좋은 나쁜)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 自身의 힘으로 現代의 産業社會를 構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년도 채 안 된다. 그러나 그동안 現代社會의 根幹이라 할 수 있는 産業面의 發達을 보면 出發初期段階에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그 結果이제는 未來의 일을 計劃하여 實踐하고 그 實績을 評價함에 있어서도 領域別로 수준 높은 專門性을 要求하는 程度에 到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일의 計劃, 實踐 및 評價에 있어서 높은 水準의 專門性이 없을 때에는 발전할

수 없는 段階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의 現代社會 發展過程上 1945년부터 1980년까지의 35年間을 初期 10年間(1945~1955)의 準備段階과 後期 25年間(1955~1980)의 量的 成長段階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55년부터 1980년 사이의 25年間은 대체적으로 모든 部門에 있어서 量的 膨脹 및 最低基準의 充足에 초점을 맞춘 時期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導入에 의한 模倣이 이 時期의 特性이라 할 수 있다. 社會의 이러한 量的 膨脹 및 最低基準의 充足 現象은 教育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精力을 教育人口의 膨脹과 均衡의 發展에 쏟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人口의 膨脹과 均衡의 發展은 初期 發展段階에서 밟지 않으면 안 될 不可避한 過程이기는 하겠으나 部分的인 卓越性을 追求하는 努力이 不足하였다는 點에서는 애석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 社會의 量的 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絕對人力의 需要를 충당하였다는 點에서 時期的으로 적절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時期에 社會에서 요구한 大學出身의 人力에 있어서도 質보다는 量이었기 때문에 大學教育도 이에 따라 量 爲主가 되고 內質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傾向이 社會에서 容納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물론 다른 理由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時期에는 大學과 社會는 大體的으로 量을 가지고 서로 “주고 받는다” 不可分의 關係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간단히 言及한 바와 같이 1955년부터 1980년 사이는 量的 膨脹과 最低基準의 充足에서 오는 模倣의 時期였는데 이로 인하여 意識構造 및 生活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많은 問題가 惹起되었다. 物理的인 量的 膨脹은 과도한 物質欲을 낳게 하였고 機會 및 配分의 不衡平으로 投機性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健全한 勤勞精神을 상실케 하는 傾向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더 重要한 點은 量的 膨脹을 위하여 不可避하였던 外國文物의 導入은 우리의 것을 輕視하는 事大思想을 助長하게 되었고, 導入한 모든 것을 韓國化하여 우리의 것으로 消化하여 發展시킬 時間的 餘裕도 갖지 못했다. 특히 모든 것이 제대로 發展되기 위해서 가장 根本이라 할 수 있는 理念 또

는 倫理觀 등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量的 膨脹 및 最低基準의 充足을 위주로 한 初期的 發展段階를 거쳐서 우리 社會는 現位置에서 있으며 앞으로의 25年間을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 未來에 대하여 方向性 및 實踐性이 결여된 잘못된 計測으로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未來는 단순히 時間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며 問題에 대한 理性的 認識과 정직한 努力으로 未來는 創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나간 過程을 바탕으로 하여 成功的인 實績이나 試行 錯誤 등을 정확하게 把握하는 동시에 깊이 洞察함으로써 開放社會속에서 우리의 現位置를 銳利하게 分析하여 未來를 豫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問題의 認識부터 改革方向이 摸索되고 난 다음에는 實踐을 위한 강한 意志力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우리 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過去와 未來에 대한 考察을 前提로 하였을 때에 大學의 役割은 분명히 “創意的 提供”이라는 하나의 表現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大學은 창조적 未來의 主役들을 그때의 일에 알맞게 教育함과 동시에 스스로 그 自身과 社會의 未來를 創造·研究·奉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는 그 發展에 있어서 量的 膨脹 및 最低基準의 充足이라는 단순한 初期的 發展戰略을 하루빨리 “質의 追求 및 韓國化”의 戰略으로 轉換하여야 할 現 時點에서 大學의 創造能力을 期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의 創造를 위하여 大學에서 必要로 하는 것을 社會는 提供해야 할 것이며 大學은 社會의 要求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自體의 能力을 향상시키고 創造를 위한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때 大學은 社會發展의 큰 몫을 담당함에 있어서 理性的 活動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게끔 그 自律性이 保障될 수 있도록 自體의 힘을 기르는 동시에 세심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